

사회

속도내는 학교폭력 수사

경찰, 후배 돈 뺏은 '일진' 18명·'기절놀이' 중학생 10명 검거

목포 '졸업빵' 폭력 2명 영장

광주경찰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잇따라 입건하는 등 학교폭력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서별로 전답수사팀을 꾸리면서 '일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들을 잇따라 검거하고 있다. 이와 함께 14일 목포경찰은 졸업식에서

일명 '졸업빵'을 한 학생 2명(광주일보 2월 13일 6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염두하고 있다.

이날 광주광산경찰은 학년별로 일진회를 구성해 후배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폭행한 광주시 광산구 모 중학교 이모(15)군 등 18명을 검거, 이군 등 6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모 중학교 주변에서 후배 이모(13)군 등 9명을 상대로 100여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학교 졸업 및 재학 중인 일진회 선·후배들

1만원을 갈취하는 등 최근까지 후배 16명을 상대로 모두 68회에 걸쳐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 등은 학년별로 각각 6명씩, 모두 18명으로 일진회를 구성해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돈을 모아 것을 지시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돈을 빼앗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월 피해 학생 아버지의 금고에서 500만 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같은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속칭 '기절놀이' 등으로 괴롭혀온 김모(16)군 등 10명을 공갈 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모 중학교 주변에서 후배 이모(13)군 등 9명을 상대로 100여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학교 졸업 및 재학 중인 일진회 선·후배들

로, 범행대상 학생을 선정한 뒤 PC방等地로 데리고 다니면서 담배 심부름과 기절놀이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후배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절놀이란 사람을 벽에 세워 숨을 참게 한 뒤 가슴을 눌러 기절시켰다가 봄을 밟아 깨우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간의 연결 고리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으로 변하기도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상납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경찰은 이날 졸업식 뒤풀이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폭행)로 박모(17)·김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목포시 죽교동 복현 선착장에서 후배 중학생 13명을 밭으로 차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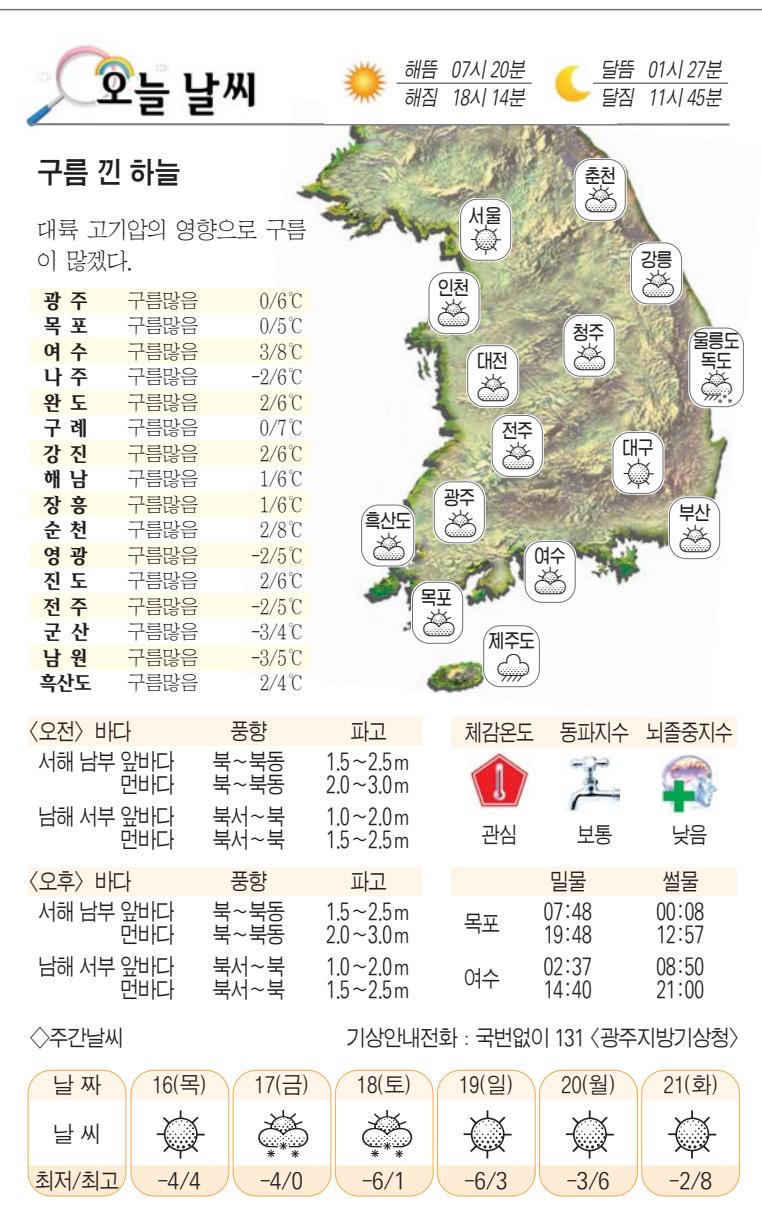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미니팬지 봄마중 채비

1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화훼단지 '꽃을 피우리 농원'에서 봄꽃 미니 팬지 출하작업이 한창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교육청, 징계요구 안따른 송원학원 제재

광주시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학교법인 송원학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부교육감 주재로 실·과장 회의를 열고 공사발주 과정에서 산하 학교의 비위가 드러난 송원학원에 대해 시설지원비 삭감, 학급 감축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법인 산하 고교에 대해 내년 1학기, 2014년 2학기 등 2년에 걸쳐 3학급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조치는 최근

금품수수와 과잉체벌로 문제가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장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공사발주 관련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적발된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수위를 부당하게 낮춘 때문이다.

교육청은 "해당법인에 학부모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모 교사를 중심

개(해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근거없이 감봉 1월 처분만 내렸다"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특성화고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체계적 준비 없이 실습생 제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의 첫걸음으로 우선 학생 모집부터 현장실습의 기획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계획이다.

/연합뉴스

"아들 죽음 원한 풀어 달라"

자살학생 부모 재판부에 '눈물의 편지'

"하니뿐인 아들이 아빠 생일 선물로 사준 5000원짜리 텔장갑을 밤마다 손에 쥐고..."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중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재판을 맡은 법원에 전언한 판결을 호소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지난 연말 자살한 중학생 A(당시 14)군의 아버지는 13일 가해학생 3명의 재판을 담당하는 광주지

법 형사 3단독에 편지를 보냈다.

A씨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절규를 판사에게 호소하기 위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은 유명을 달리한 날 도 돈이 700원밖에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패딩 점퍼가 배달되기를 학교고대

하고, 숨지기 이를 전 요즘 유행하는 셀프랜즈를 추더 모��이 아직도 생생해 먹먹한 가슴을 주체할 수 없다고 적었다.

A씨는 "공교롭게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5일이 아들의 49재"라며 "재판장의 혐명한 판결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읊조렸다.

편지와 함께 A씨는 아들이 계곡에서 웃을 짓는 모습이 담긴 사진, 숨지기 1~2일 전 '내 삶에 흔적을 남긴 사람'으로 가족을 소개하는 논술과 제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 젠 톤 - 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돈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양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립니다. 비단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 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h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과 수수료 전기요금을 절약 시켜드립니다.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TEL 062-512-1180 / H.P 011-659-7001

이쁜아침 체인점 대박 히트 사업 체인점 대모집

철판 콩나물 불고기

철판 생오리 불고기 | 철판 닭다리 불고기
철판 돼지 불고기 (100% 국내산)